

이완옥 농기센터 소장,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동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이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이 소장은 4일 전봉준 장군과 무명 동화농민군을 포함한 새로운 군상(群像)을 제작하는 데 환하게 달려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완옥 소장은 "전국 최초로 동화농민혁명 군상이 정읍에 건립되어 기쁜 마음에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번 군상 건립을 통해 정읍 동화농민혁명 정신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관내 취약지 가로정비 실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입순)는 4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도심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정안신로 일대와 경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팝길공원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 재분류 작업을 직접 실시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황승일 회장은 "새해를 맞아 새마을 회원들이 뭉쳐 한마음으로 실시한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해진 동네를 보니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입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중앙교회, 사랑의 성금 전달

전주시 인후1동 소재 인후중앙교회(담임목사 강신관)는 새해를 맞아 인후1동 주민센터(동장 송문석)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인후중앙교회는 해마다 떡국나눔 행사 및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강신관 담임목사는 "본격적인 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조금씩 모은 성금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여

전북대 이은송 대학원생,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이은송 대학원생(유연인쇄전자공학)이 최근 열린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자동차 산업 및 항공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볼트/너트 체결부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 기술을 발표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은송 대학원생은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건축, 토목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볼트/너트 체결부가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팽창/수축함에 따라 실제 체결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초음파 신호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이 기술은 기존에도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체결 길이가 달라지거나 볼트/너트 체결부 조립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적

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현대자동차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UAM(Urban Air Mobility) 등 항공분야의 볼트/너트 체결부 풀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을 확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업체에서 사용하던 장비, 센서 및 소프트웨어 대신 자체 장비와 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은송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강태영 교수팀은 최근 국방 분야 난제 중 하나였던 내열 복합소재 접착 분리 결합 검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내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비파괴 검사 기술 기반으로 지역 내 기업이 개발한 탄소복합재 구조 및 자동차 구조물의 신뢰성 향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 혁신동주민센터, 어려운 이웃 온정 줄이어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이장봉)에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 혁신동에 사는 초등생(8세)이 혁신동 주민센터에 6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용돈을 아껴 500원씩 모아 가져 마련한 돈이다.

같은 날 전주 민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웃돕기를 위해 진행된 달고나 판매 행사에서 나온 수익금 9만 원을 혁신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 후원금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혁신동신교회(목사 이성열)에서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20kg 3포대를 전달했다.

이장봉 혁신동장은 "힘든 시기에도 기꺼이 기부해주신 기부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한 성금과 물품은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월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간담회·안전교육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에서는 지난 3일, 2022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지리산둘레길 홍보지기)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인월면에서는 32명의 참여자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월 30시간(1일3시간, 월10일)씩 지리산 둘레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환경정비 사업과 관내 도로변, 화단, 생활체육공원 등의 정화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월면을 만드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2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자 의견을 청취하고 어르신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진행되었다.

한편 이은주 인월면장은 "어르신들 덕분에 인월면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씨에스윈드 김성권 대표, 고흥 산외면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씨에스윈드(주) 김성권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산외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씨에스윈드(주)는 충남 천안시에 자리잡은 중견 기업체로 태양광 풍력 발전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 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회사의 주력생산품인 풍력타워를 2020년까지 전 세계에 13,400개를 공급하는 등 풍력발전 타워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문업체다.

김 대표이사는 2020년에도 산외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날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을,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성권 대표는 "몸은 타지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흥을 생각하고 있다"며 "고향의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홍순중 면장은 "산외면 학생들을 위해 3년 연속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김성권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과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신동아학원, 2022년 시무예배 개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4일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 2020년 신동아학원 시무예배를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예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동아학원 법인 및 산하 기관장 등 소수 인원만 참여,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주사태부교 목목 손권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전주비전대 교목 김영선 목



라고 강조했다.

사의 대표기도, 전주대 교목 한병수 목사 설교, 전주비전대 선교지원처장 조용호 목사의 축도, 2022년 축복인사순으로 진행됐다.

전주대 한병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앙의 때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